

# 더 이상 늦출수 없다. 출연연구기관 노동자의 정년을 환원하라!!

## ● 행안부 공무원 노동자 정년 65세 연장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노동자 정년 65세 연장 합의가 알려지자 연일 정년 연장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 여당도 임금 체계 변경 등 일부 조건을 제시하면서도 정년 연장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분위기다.

## ● 출연연구기관 1998년 정년 61세로 축소

출연연구기관의 경우 1998년 경제위기 당시 65세 정년을 61세로 단축했다.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온 국민이 힘을 모으는 시기였으니 출연연구기관 종사자도 당연히 희생한 것이다. 하지만, 경제위기를 극복하고도 정부는 정년을 회복시키지 않았다.

우리 노동조합과 연구현장의 요구가 높아졌고 뒤늦게 우수연구원 정년 연장 제도와 정년 후 재고용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선별적인 정년 제도는 시행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했고 출연연구기관의 정년 환원은 더욱 절실히 해지고 있다.

정년 연장은 우리 사회 고령화와 저출산에 따른 노동력 축소, 연금제도 개선 등 사회 전반적인 제도 변화에 따른 피할 수 없는 의제이다

## ● 연구역량 축적. 정년 연장으로..

출연연구기관은 이러한 일반적인 문제 뿐만아니라 기초분야 연구개발의 특성상 연구원 대부분이 30대 이후에 입사한 후 숙련을 거쳐 연구개발에 매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정년이 61세인 상황에서는 30년을 근속하기 어렵고 깊이 있고 장기적인 연구과제 수행도 불가능하다. 이러한 이유로 출연연구기관 설립부터 정년을 65세로 정한 것이었지만 경제위기를 이유로 축소한 이후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2025년 이후에는 매년 1백만명이 넘게 출생한 2차 베이비부머 세대의 정년 퇴직이 시작된다. 인력구조가 역피라미드인 출연연구기관도 다수의 정년 퇴직이 예상된다. 연구역량 축적의 단절 등 인력 구조의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 ●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청년 일자리 창출, 임금 체계 개선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지 않는다. 하지만,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정부와 국회의 법 개정 이전이라도 출연연구기관의 임무의 특성에 맞춰 신속한 정년 환원을 결정해야 한다.

